

‘벼랑 끝’ 하남산단

재고량 쌓이고 가동률 반토막... 올 14개 업체 도산

광주지역 전체 제조업체 중 27%가 입주해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불려온 하남산단이 실물경기 위기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7개 업체에 불과하던 부도 업체수는 올해 3·4분기까지 9개로 늘었고, 이 가운데 10·11월에만 5개 업체가 문을 닫는 등 하남산단이 환란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수출 물량이 급감한 삼성광주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 물량을 축소하면서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생산현장에서 만난 A기계업체 관계자는 “납품단가가 맞지 않아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지만, 그렇다고 공장을 늘릴 수도 없어 고민이다”며 “이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업체의 20~30%가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걱정했다.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 C사 출업체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B업체 대표는 “원자재 값은 끝없이 오르는데 모기업이 매년 CR(Cost Reduction·납품단가 후려치기)을 강요, 출혈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평균가동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원자재가는 42% 오른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업체들의 평균 공장가동률도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다. 하남산단 관리공단은 지난 2·4분기의 공장가동률을 81.5%라고 밝혔으나, 11월 들어서는 50%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D사 관계자는 “모기업의 내수·수출부진으로 인해 납품물량이 지난해보다 50% 줄어들면서 재고량이 크게 늘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최근 한달 새에 쌓인 재고만 전달 대비 25%나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억여원의 운전자금을 확보하려고 기술보증기금의 신용

서를 들고 은행문을 두들겼지만,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울 말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자, 이미 인원감축에 들어간 업체들도 적지 않다. 20여 업체들이 각각 20~30명씩 고용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을 정리했는가 하면, E·F·G사 등은 상용근로자마저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산단의 이같은 ‘갈바람’은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김모(48·광산구 장북동)씨는 “어려울수록 같이 가자는 업체의 경영방침에 따라 50여명의 직원 가운데 20여명의 동료들이 12월부터 고용안전센터에서 고용훈련을 받기로 했다”며 “회사들마다 정규직 퇴출바람이 불고 있는데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불황 중고차 시장도 '공공' 불황의 여파로 자동차업체 등 내수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23일 광주시 서구 용암동 중고차매매단지 주차장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 불안하다

정부는 예산 지원 축소 움직임 민간은 사업 희망자 전혀 없어 환경은 행사장 바다 오염 심각

오는 27일로 210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1주년을 맞아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을 축소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요 시설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기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박람회 성공 개최까지는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정부는 박람회 기본계획(안)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박람회 총 사업비로 예정된 2조3천886억원 가운데 30%에 이르는 7천여억원을 민간투자 유치로 충당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에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지난 2004년 12월 박람회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당시의 의지가 퇴색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엑스포타운(종사자 주거지) 조성비용 일부를 지방비로 분담할 것을 요구, 전남도 및 여수시와 갈등을 빚는 등 ‘정부가 여수박람회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 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박람회 민간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것도 박람회 성공 개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서울서 민간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아쿠아리움(932억 원)과 엑스포타운(5천763억 원), 콘도(326억 원), 다목적 공연장(700억 원) 등 박람회 주요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람회 기본계획안’도 부실 논란

을 넘어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제외했던 상징조형물을 지역의 반발 여론을 감안, 추가키로 결정했으나 규모 등의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 박람회장 주변의 불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박람회 부지 배후단지 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수시와 지역민들은 부지에 다양한 불거리를 건립할 것과, 민간투자가 실패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람회가 개최될 행사장 일대 해안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해수산업구소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부터 4일간 여수신항 인근 해역 9곳에서 수질환경, 해수유류, 퇴적환경, 수중폐기물 분포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해역에서 수질이 생활 서식에 부적합한 2등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람회 부지인 여수신항 앞바다의 경우 투명도가 수중 가시거리 2m에 그치고, 박람회 주요 전시시설인 ‘BIG O’ 설치예정 장소인 파제제 내측과 북방파제는 수질 오염도가 3등급으로 조사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한·미·일 정상 “북핵 6자회담 내달 초 개최”

APEC 정상회의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중·고생 거울명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22일(한국 시각 23일) 리마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 회담을 내달 초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또한 이날 APEC 회원국 지도자들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연내 마련하고, 향후 최소 1년간 보호주의 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3국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핵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중국이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국이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북정책은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지도자들은 이날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연내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APEC 회원국들은 또 특별성명에서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어떠한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겠으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스

YB윤도현밴드
 광주콘서트

2008. 11. 29 SAT 7:30PM, 30 SUN 5:00PM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티켓판매: 티켓마루, 티켓링크, 옥션티켓